



여수시  변천사

VII. 금죽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지리적 배경

1) 개요

금죽도는 가막만의 중심에 있는 가막섬의 동쪽 1.4km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에 소속된 인구 2명의 미니 유인도이다. 여수 대경도 선착장에서 남쪽으로 약 6.2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해안선 1.6km, 면적은 0.9km²이다.



금죽도 전경

금죽도의 동쪽에 선착장이 있고, 주민은 김씨부부 한 가구만 살고 있다. 옛날에는 고구마와 보리를 재배 하였지만 지금은 작은 텃밭에 비닐하우스 한동에서 자급 할 정도의 채소만 재배하고 연근해에서 주로 나는 전어·도다리·낙지 등을 어획 하여 소득으로 삼는다.

대중교통편이 없는 낙도로 육지인 여수와와의 교통은 자가 소형 어선을 이용해야 한다. 전기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3kw급 태양열과 발전기로 생산하며. 식수는 풍부한 편으로 최근에는 암반수를 개발하여 사용한다.

2) 인구현황

2022년 1월 1일 현재 1가구에 김○○(71, 남)·정○○(67, 여)씨 부부만이 생활하여 유인도의 명맥을 겨우 이어가고 있다.

인구 현황				
도서명	세대수	인구수	남	여
금죽도	1세대	2명	1명	1명

나. 지형과 환경

1) 지형과 지질

금죽도의 지질은 후기 백악기에 관입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 해안에 걸쳐 화강암 기반의 기반암에 대해 침식이 진행 중이며, 침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안 곳곳에서 구상 풍화와 핵석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암체에서 떨어져 나온 핵석들이 해안에 쌓여 자갈해안을 이루고 있다.

남쪽 해안과 북서 측 해안에는 소규모의 파식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 해안 파식대 근처에는 암주상으로 관입된 지형도 관찰된다. 그 외 지역은 cobble급 이상의 거력으로 이루어진 자갈해안이 형성되어 있다. 북서쪽 고도 10m 부근에서 1개의 토어가 관찰되었다. 토양은 신생대 제4기의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만들어진 적색토가 넓게 분포한다.



해석으로 이루어진 자갈 해변



소규모의 파식대지



토어

2) 기후

가막만 북쪽 내만 수역은 오목하게 다소 깊고, 만의 중앙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깊어져 남쪽만 입구에서는 최대 수심 40m에 달하며, 대경도 남쪽에는 경사가 완만하다.

대조차는 약 3m이고, 만 내의 해수는 탁월한 조류에 의해 여수항과 돌산도 사이에 있는 북쪽의 좁은 수로와 남쪽의 크고 작은 여러 수로에 의해 출입되며, 유입된 해수는 만 내에서 만난다. 평균 수온은 표층이 6.21~25.52℃, 바닥층이 5.80~23.82℃로 온대 해역의 전형적인 계절 변동 특성을 보인다. 층별 차이는 8월이 가장 크고, 11월이 가장 적으며, 8월에도 3~4℃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뚜렷한 성층은 나타나지 않는다.

수온의 평균 분포는 표층과 바닥층 모두 2월과 11월에는 수심이 비교적 깊은 만의 남쪽이 높고, 만의 북쪽이 낮은 반면, 8월과 5월에는 만의 북쪽이 높고, 남쪽의 만 입구로 갈수록 낮아진다. 가막만의 최대 조차는 여수항 부근과 송도 연안에서 각각 357cm와 352cm이다. 조류의 최대 속도는 송도 부근에서 약 100cm/sec, 내만인 평사 연안이 약 40cm/sec이다. 송도에서 조류 성분은 주로 북서~남동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의 회전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내만인 평사 부근에서는 북동~남서 방향의 조류 성분이 지배적이며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가막만 바다 밑바닥의 퇴적물은 전반적으로 모래나 자갈이 거의 없는 아주 미세한 갯벌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식업이 발달해 수산자원 보호 지역 및 청정 해역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다. 식생과 생태

분포하는 식물 군락은 주로 곶
솔 등으로 이루어진 상록침엽수 2차
림이며, 남부 온대 혼효림 군락이 발
달해 있다. 군락의 증위별 우점도와
군도를 보면 교목층 및 아교목층, 관
목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죽도의 대나무 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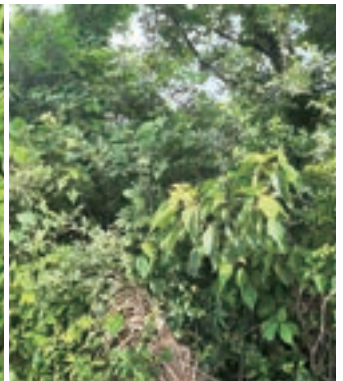
오동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뽕나무, 후박나무, 개서나무, 자귀나무, 엄
나무, 비목나무, 소태나무, 개웃나무, 예덕나무, 말오줌때, 대나무, 작살나무, 광나무, 땅
싸리, 녁쿨식물(청미래넝쿨, 단풍마, 새머루, 명석딸기 등), 초본식물(등골나물, 까치수
염, 취나물, 달래, 개망초, 뱀딸기, 환삼덩굴, 천문동) 암반의 모래땅 등에는 해국, 갯기름
나물, 땅채송화 등이 일부 패치 상으로 군락을 이루며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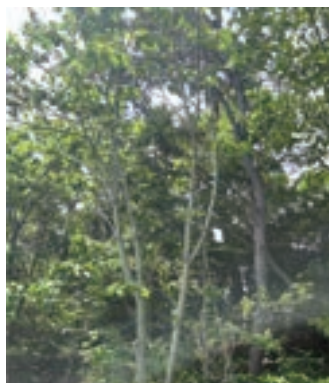
명석딸기



풀고사리



예덕나무



벽오동



상수리나무



팽나무



금죽도 지명지도

2. 역사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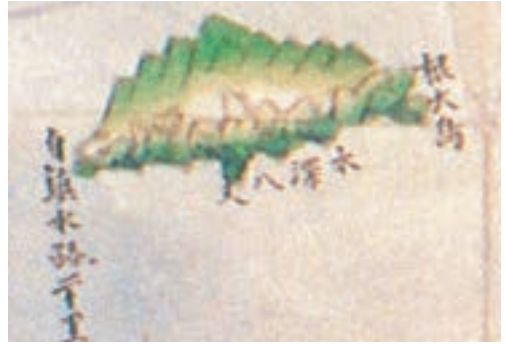
가. 지명 유래

지명 유래를 보면 섬에 대나무(시누대)가 많아 멀리서 보면 금빛이 나므로 ‘금죽도’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 온다. 인근지역에서는 금대도, 근대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섬에 자생하는 대나무는 화살을 만들기에 적합하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화살을 만들어 왜군을 무찌르는 데 사용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현재 금죽도에 대나무 군락지 보다는 전체적으로 곰솔군락지가 우점하고 있다.



금죽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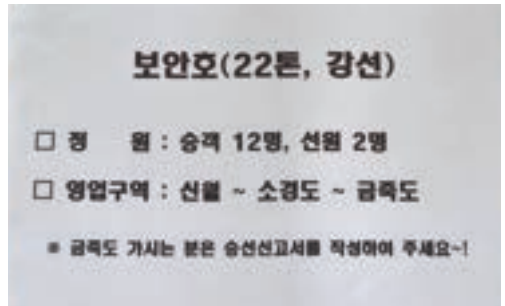
금죽도 고지도 (근대도 根大島)

나. 교통수단

교통편은 소경도의 도선인 보안호의 영업 구역으로 금죽도까지 운행하게 되어 있지만 방파제의 접안이 용이하지 않아 운행을 꺼리고 있어 주민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유일한 교통수단인 3금죽호



보안호의 운행구간

다. 주민들의 생애사

이 섬에는 한때 50여 명의 주민이 북적거리며 살았다. 현재 이 섬에는 단 1가구만이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05년에 입도하여 소박한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다.

김 씨는 금죽도에서 태어나 자란 인물로, 젊은 시절 시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아내 정 씨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지난 2005년 직장을 접고 아내와 함께 섬에 들어왔다.

김 씨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 섬에서 나고 자라면서 고향과 늘 삶을 함께 해왔다. 금죽도 역사의 산증인이자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0.5톤 FRP선이 한 척이 섬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여수로 나가 생필품을 사 오거나 식구들을 섬으로 데려오는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없어선 안 될 생계 수단이기도 하다.

부부는 인근 바다에 펼쳐놓은 이각망으로 전어, 도다리, 노래미, 송어 등 생선을 잡아 시내 횃집 등에 판매하고 있다.



금죽도의 유일한 주민 김채봉(71, 남) 씨 부부

라. 섬에서의 생활

우물 옆으로 잘 다듬어진 농로와 산책길(3m)이 있고, 산책길을 한 바퀴 도는 데는 30분 정도 걸린다. 산책길은 곰솔과 떡갈나무, 억새 등 여러 가지 식생들이 방풍림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섬의 자랑거리는 물이다.

흔히 섬에선 식수가 부족한데 이 섬에는 3개의 우물이 있어 물 부족 걱정은 없다.



물맛이 좋다는 우물



우물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식수 저장탱크

1) 전기

5kw급 태양열 발전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3kw 정도 생산된다.



태양열 발전시설



배전반 추시실과 배터리 충전전기

2) 식수

기존의 우물이 2개 있으며 옛날부터 물맛이 좋았다는 소문 때문에 인근까지 작업 나온 어부들은 항상 여기 물을 식수로 길어갔다.

최근에는 지하 85m에서 뽑아내는 암반수를 개발하여 하루 20톤씩 생산하는데 섬에서 꼭 맛봐야 하는 명물이다.